<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협회회장단은 물러나라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가? 국내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라면 두말 없이釩세계 3위鋀라고 답할 것이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에틸렌 생산능력이釩세계 3위鋀이고, 합성수지도釩세계 3위鋀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왜 이토록釩세계 3위鋀를 강조하는 것인가?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화학산업계에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규모가 대단하고 경쟁력이 막강하니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뜻은 아닐 터이고, 아시아 화학산업계에 물량공세의 위력을 실감했을 터이니 실체를 인정해 달라는 뜻도 아닐 것이다. 내세울만한 곳은 오직 한군데 뿐이다. 경제 · 산업계 및 정부를 상대로 실체를 인정해 달라는 몸부림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이 530만톤을 넘어 세계 4위이고, 합성수지 생산능력도 1000만톤에 근접해 세계 3-4위에 올라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미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와 엇비슷하거나 약간 우세한 편이고, 중국도 현재는 우리보다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수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도 앞서고 있으니 실제 유통량을 따진다면釩세계 2위鋀라고 칭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합성고무는 수출이 주종이고 합성수지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생산량의 50%에서 70%까지 수출하고 있으니 석유화학제품 유통대국에 올라 있다고 자랑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생산능력이나 유통규모에 걸맞게 경쟁력이 강한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바로 국제경쟁력이 생산 및 유통량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이 점은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라면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보통은 생산규모가 크고 유통량이 많으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나 석유화학은 국내기업들의 안일한 경영 및 전략 부재, 중국인들의 탁월한 대응능력이 겹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물론 2가지 주요인 외에도 동남아의 수출전선 합류, 중동의 저가 원료를 바탕으로 한 물량공세, 미국의 잉여물량 Spot 판매가 겹쳐 일어난 현상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중대하고도 중요한 요인을 한가지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전략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화공쟁이 특유의 아집과 오만불손은 둘째 치고라도 무능한 경영진에 안일한 간부진, 그리고 국내 최고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파업에 파업으로 날 강도질을 일삼는 노동자들,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고 결국에는釩낙동강 오리알釩신세가 돼釩삿갓 쓰고 깡통 찰釩날이 그리 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중국의 투자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을 마냥 사줄 정도로 인심이 후한 국민은 아닐 터이니 중국경제만 계속 발전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은 버릴 때가 지난 지 오래이고, 사우디를 비롯한 이란, 캐나다에서 에틸렌 100만-120만톤 크래커들이 우후죽순으로 건설되는 판이니 손재주를 자랑할만한 처지도 아님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할 일이 바로釩태풍 앞의 촛불釩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일임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업종단체는 무릇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함께 공동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장기비전을 세워 추진해 가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석유화학협회에 2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원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베푸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물 쓰듯 사용하면서 국가적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산업경쟁력 향상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카르텔 도모하기, 골프회동 주선하기, 호텔 빈자리 채우기 등 국력 낭비와 경쟁력 갉아먹기에 여념이 없다. 하기야 낙하산 인사에 무능한 간부진들이 모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측은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성재갑 회장도 취임 당시에는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석유화학이 아닌 생명공학을 책

임지고 있어 한참 거리감이 느껴진다.

한국석유화학산업을일신시킬수있도록협회의회장단, 임원, 간부진들이물러날것을강력히권고한다.

<화학저널 2001/9/3>